

한라포커스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나

제주공항 '주공항' - 제2공항은 '부공항' 으로

공항간 역할분담 방식 결정... 7개 안 놓고 검토
기존공항 경제권 유지 '장점'... 환승 불편 '단점'
주민 상생방안은 지속 의견수렴 후 구체화키로

현 제주국제공항은 '주공항', 제2공항은 '부공항' 역할을 원칙으로 하는 제2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용역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맡아 수행했다.

주목할 점은 공항간 역할분담 방식의 결정에 있다. 용역진은 노선 기반 역할분담 대안을 7가지로 정리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다.

대안별로 살펴보면 ▷1안=기존 공항 국내선 전용/제2공항 국제선 전용 ▷2안=국제선 전용/국내선 전용 ▷3안=국내선 전용/국내선·국제선 전용 ▷4안=국내선·국제선 전용/국내선 전용 ▷5안=국내선·국제선 전용/국내선·국제선 전용 ▷6안=국내선·국제선 전용/국제선 전용 ▷7안=국제선 전용/국내선·국제선 전용 등으로 검토됐다.

그 결과 1·6안은 기존 공항 활주로 용량 초과와 수요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2·7안은 기존 공항 이용객수 급감과 제2공항 활주로 용량 초과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나머지 3·4·5안을 놓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4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4안의 장점으로는 기존공항 CIQ(세관·출입국 관리·검역) 시설 활용이 가능한 점, 기존공항 인근에 이미 형성된 외국인 등 대상 경제권 유지가 가능한 점, 전체 도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기존 공항 인근 주민의 국제선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이 제시됐다.

반대로 기존공항 국제선 비상(패쇄)시 제2공항의 대체가 불가능하고 제2공항의 국제선 취항의 한계, 제2공항 이용객 환승 편리성 저하 등이 단점으로 꼽혔다. 이밖에 사전타당성

용역과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제시됐던 3안은 탈락했으며, 국제선 처리 능력이 필요할 경우 5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용역진은 설명했다.

아울러 용역진은 제주도 전체 항공 수요를 2055년 목표연도 4109만 통행(사람수 기준 2055만명, 국내선 3796만 통행·국제선 313만 통행)으로 예측했다. 또 운항횟수는 25만 7000여 회로 추정했다.

공항간 역할분담 대안 중 4안을 놓고 공항시설 규모를 산출한 결과, 연간 1898만 통행(사람수 기준 949만명) 처리 목표를 제시했다.

이밖에 계류장·터미널 등 단계별 건설을 통해 국제선 취항에도 대비하며 과잉관광에 대한 대처가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상생방안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에서 전체 지원방향 및 시기별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지원 방안으로 ▷이주단지 조성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일자리 제공 ▷상하수도 및 농업용수 공급 시설 정비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공항경제권 구상 등이 제안됐다.

용역진은 23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에 제출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쯤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19일 오후 3시 예정됐던 용역 최종보고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고회에 무산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나실 있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최종보고회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제2공항 반대 단체 회원들이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최종보고회를 막아서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왼쪽). 사진 오른쪽은 이날 제주자치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고 있는 제2공항 성신읍추진위원회 회원들. 강희만기자

종합의료단지 조성·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101건 접수

상생발전방안 상당수... 제도개선 등 의견 제시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 발굴을 위한 도민 의견이 총 101건 접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달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 반영 과제(안)를 공개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27건, 공항확충지원단과 성산읍 주민소통센터 방안을 통해 74건이 접수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편입 토지주에 대한 보상 및 제도개선 ▷정주환경을 비롯한 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공항운영 및 참여 방안 ▷상

생발전 방안 ▷관광문화시설 확충 등이 제시됐다.

제2공항 건설과 연계한 주거단지·관광시설·물류 산업단지 등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정주환경 및 환경 개선 의견도 많았다.

특히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에 편입되는 자경농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더불어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존재했다. 기존 상권 침체를 우려해 현 제주국제공항과 제2공항 간의 항공기 배분을 균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도민들은 이 밖에도 혼인지를 스톨웨딩 중심지로 활용, 지역 역사 자

개별관광 트렌드 변화따라 맞춤형 온라인마케팅 강화
제주도, 홍보전략도 업데이트

제주관광 홍보가 시류에 맞춰 다양하게 전개된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관광트렌드가 개별관광(FIT)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유명 유튜브 활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 ▷온라인 마케팅 페스티벌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잠재적 개별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10만 이상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유튜브의 제주체류 영상제작을 지원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유명 유튜브들의 제주를 테마(계절별 먹방, 명소, 일상, 액티비티 등)로 한 영상물 제작과 개인방송을 지원해 구독자들에게 제주를 알리고 있다.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유명계정을 활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바이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각 매체의 여행관련 유명계정(100만 이상 팔로워 보유 등)을 통해 월별 테마를 정해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Jeju Marry me'를 테마로 웨딩관련 포스트를 통해 37만5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6월에는 '바람, 바람, 바람'을 테마로 여름레저, 해양 액티비티, 여름 별미, 아직 알려지지 않은 비경을 발굴 홍보할 계획이다. 조상훈기자 sycho@ihalla.com

제주네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조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계로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

조합원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동제주신협이 되겠습니다.

대출특판 연 3.99%

2년이상 개인,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유형, 건축전문업종 제외)

출자연계 우대금리 특판 예·적금 모집 2019년 12월말까지 한시판매

정기예탁 1~3년 기본금리	출자금 5천만원 이상 0.5%	최고 연 3.5%
	출자금 2천만원 이상 0.3%	
	출자금 1천만원 이상 0.2%	

서민대출: 사잇돌 대출(근로자, 자영업자) · 햇살론(근로자, 자영업자) | 최고한도 2000만원

중소기업대출: 2.0% 이하

농어촌 전용자금: 0.9%

동제주신협
화북본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일주동로 205 | T.722-7001
이도지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연삼로 429 | T.722-7002